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당국의 미세조정 개입 경계심에도 연고점 갱신하며 급등
------	-------------------------------

전일 달러-원 환율은 당국의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에 의한 상승폭 제한에도 연고점을 갱신하며 급등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출구전략 발언 이후 위험회피 심리가 지속되면서 달러화가 상승했다. 달러화는 개장 초부터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을 반영하며 1,160원선에 바짝 근접했다. 그러나 달러화 상승폭이 커지면서 외환당국 구두개입성 발언과 스무딩 오퍼레이션 추정 매도 등에 추격 매도가 제한되며 가까스로 1,150원대 중반으로 레벨을 낮추었다. 다만, 버냉키 발언의 후폭풍이 지속되면서 저점 결제수요와 매수 심리가 꺾이지 않아 달러화는 전일 대비 9.0원 급등한 1,154.7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 공포심에 외국인 매도세로 전일 대비 27.66포인트 하락한 1,822.83으로 거래를 마쳤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54.00	1159.40	1151.00	1154.70	1155.6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177.39	1193.82	1174.99	1179.55	
금일 전망	고점인식 및 외환당국 개입 경계심으로 1,150원대 등락전망				

달러-원 환율은 美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지속으로 상승압력을 받는 가운데 1,150원 중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출구전략 우려와 더불어 그리스의 정치적 불안이 불거지면서 달러매수심리가 유지될수있으나,

최근 환율 수준이 연중 최고점임을 감안할때 1,160원을 앞두고 당국 개입 경계감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큰폭의 상승은 제한될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월말 네고물량유입 및 외국인 주식매도세에 따른 역송금이 발생 가능성은 금일 상승폭을 제한하는 추가적인 요인이다. 한편, 전일 뉴욕증시는 저가매수세 유입 및 그리스 정경불안으로 혼조세로 마감했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43.00 ~ 1165.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8009.36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15원상승
	■ 美 다우지수 : 14799.4, +41.08p(+0.28%)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97.31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196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